

원가족 경험과 자아존중감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홍 보 화(영남대 박사과정) · 이 지 민(영남대 조교수)

부부갈등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가족문제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은 자신이 결혼 전에 생활해 온 원가족의 영향과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원가족 경험(원가족 건강성, 원가족 규칙)과 자아존중감, 부부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남편과 아내 각각이 지각하는 원가족 경험과 자아존중감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좀 더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기간 10년 전후인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를 한 쌍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300부(150쌍)를 배부하여 회수된 206부(103쌍) 중 불성실한 설문지와 부부 중 한 사람의 응답만 회수된 경우를 제외한 총 180부(90쌍)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로는 원가족 건강성, 원가족 규칙, 자아존중감, 부부갈등이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상관분석,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는 원가족 규칙의 하위요인 중 감정규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부부갈등의 하위요인 중 자녀지도에서 부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자아존중감이 남편이 지각하는 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 자신이나 아내가 지각하는 원가족 건강성과 원가족 규칙은 남편이 지각하는 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남편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존중감만 투입된 경우 34%, 남편과 아내의 변수가 모두 투입된 경우에는 44% 설명력을 나타냈다. 셋째, 아내의 경우, 아내 자신의 원가족 규칙 중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과 자아존중감이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남편의 원가족 경험이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아내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존중감만 투입된 경우 23%, 남편과 아내의 변수가 모두 투입된 경우에는 3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